

근·현대 역사를 횡단하는 철도 여행기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계

박흥수 지음

“...수레 속에 안져 영장으로 내다보니 산천초목이 모도 활동하여 닳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

1899년 9월 18일 인천(제물포)과 노량진을 연결하는 33.8km의 경인선이 개통됐다. 이튿날 ‘독립신문’ 기사는 기적소리를 울리며 달리는 철마(鐵馬)를 이렇게 묘사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열차를 ‘불 뿜는 바퀴 달린 거인’이라는 의미의 ‘화륜거’(火輪車)라고 불렀다.

현직 철도기관사인 박흥수씨가 최근 펴낸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계’는 근대 발명품인 기차를 타고 근·현대 세계사를 횡단한다. ‘기관사와 떠나는 철도 세계사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



에 대한 철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철도의 눈물’(2013년)에 이은 두번째 저작이다. 19세기 기차의 등장은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됐다. 또한 철도는 근대의 풍경을 바꾸었다. 증기기관을 이용한 인쇄기를 이용해 대량으로 찍은 신문이 기차에 실려 먼 곳까지 배달됐고, 기차에서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고판이 등장했다. 근해에서 잡힌 생선이 철도 덕분에 부패하기 전에 도시로 공급되며 신메뉴 ‘피시 앤 칩스’(Fish&Chips)를 선보였고,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 역안에 들어섰다. 또 반 고흐나

윌리엄 터너 같은 인상파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기존 말 두마리의 영당이 폭에 맞춘 마차바퀴 간격(1.435m)이 철도 궤도의 국제 표준으로 정착됐다.

특히 철도는 ‘시간’(세계 표준시)을 탄생시켰다. 1884년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본초 자오선으로 하는 표준시가 정해졌다. 이를 두고 ‘멋진 신세계’의 저자인 올더스 헉슬리는 “와트와 스티븐슨은 기관차만 발명한 게 아니다. 그들은 시간도 발명했다”라고 기록했다.

저자는 ‘근대철도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질문을 던지며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과 전쟁의 도구로 쓰인 철도의 어두운 역사도 낱알이 밝힌다. 미국은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하며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몰살했고, 나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기차에 태워 아우슈비츠로 실어날랐다.

이 책은 일본의 조선침탈 과정을 철도 중심으로 서술한다. 대한제국을 침탈하기 위한 일본의 야욕은 기적소리와 함께 시작됐다. 일제는 ‘조선을 차지하려면 철도를 장악해야 한다’면서 경인선·경부선·경의선 등 철도부설권을 하나하나 손안에 넣고 마침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저자는 시대별 철도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의 부당함을 지적한다. 특히 20년째 열차를 몰고 있는 저자의 꿈은 남과 북의 어린이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것이다. 또한 철도가 소통과 연대의 도구로 변신해 적대적 갈등을 불식시키고, 희망을 나르는 착한 거인이 돼 그 출발점이 서울과 평양, 신의주를 잇는 노선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은 독자들에게 울림을 준다. <후마니타스·2만원>/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1901년 10월 부산 초량에서 열린 경부선 기공식 행사장. 1905년 1월부터 서울~부산간 경부철도 운행이 시작됐다. <후마니타스 제공>

우주의 기본 구조와 과학의 미래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

리사 랜들 지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지 100년이 지난 현재, 물리학은 혁명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10의 마이너스 수십 제곱 미터의 극미소의 물체를 다루는 입자 물리학과 은하 같은 수백억 광년 크기의 전체를 다루는 우주론 등 스케일이 다른 두 분야에서 특히 그렇다.

그뿐 아니다. 우주의 팽창이 날로 빨라진다는 가속 팽창이 발견되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로부터 우주 진화의 역사가 해명되고 있다. 오랫동안 물리학자들이 추측만 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노벨상에 근접했다는 여성 물리학자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 리사 랜들 교수가 우주의 기본 구조와 과학의 미래를 조망했다. 하버드대학교와 MIT 물리학과에서 여성으로는 첫 중신 교수직을 획득한 리사 랜들은 이번 펴낸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는 우주의 미지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미국과 유럽의 과학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뉴욕 타임스 북 리뷰’가 선정하는 ‘주목할 만한 도서 100’ 중 하나로 선정됐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만나 과학, 기술,



사회 문명을 바꿨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자 물리학-우주론 혁명은 향후 인류 문명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는 책에서 원자나 쿼크 같은 구성 요소들이 일상적인 물리 법칙과는 다른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한다.

21세기 첫 10년을 보낸 지금, 우주의 기본구조에 대한 물리학의 이해는 커다란 변혁의 과정에 직면해 있다. 이는 급격한 과학 혁명을 동반하는 패러다임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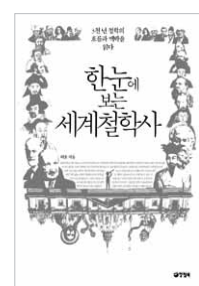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물리학과 우주론에 있어 지극히 자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보게 될 몇 가지 관측 결과는 우리 지식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극히 작은 물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를 발견해 온 과정의 총합이다. 우리가 더 잘 알고자 하는 거대 스케일의 구조는 우리 우주의 기원과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주적인 환경에도 빛을 비추 줄 것이다.” <사이언스북스·3만3000원>/박성천지킴i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평행 우주 속의 소녀**=여성은 선천적으로 과학적 두뇌가 부족하다는, 혹은 과학을 잘하는 여성은 괴짜스럽고 여성답지 않다는 편견적 메시지가 도처에 넘쳐난다. 여성이 실험실에서 부딪히는 온갖 편견과 불이익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을 꿈꾸던 여성들이 스스로 과학에서 도망치도록 만들고 있다. 저자는 여성 과학도의 자신감부터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말한다. 또 수학이나 과학은 인기 없는 괴짜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반지성적 사고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새·1만8000원>

▲**그림을 걸다 창을 내다**=미술 관련 출판편집자 이전에 미술 애호가인 저자가 우리 시대 핫 한 예술가 15인을 만났다. 다양한 매체에서 분주히 소개되는 권정준, 김혜원, 김범수, 김석, 난다, 노준, 도병규, 박미진, 박병일, 박은하, 성유진, 성태훈, 이원철, 이종희, 주도양이 그들이다. 그들의 작품과 글을 한자리에 모으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책에는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시대를 새기고, 자신의 삶을 울곧게 영위하는 순수예술가 15인의 철학과 작품이 담겨 있다. <풀빛미디어·1만6000원>

▲**서늘한 말**=‘세상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널 가진 적이 없다’(에르빈 롱겔의 명언). 때론 간결한 문장이 그 어떤 장문 보다 사람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현재 중앙북스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가 문학에서부터 경제까지, 영 시에서부터 한시까지 역사속 지성들이 터득한 115편의 서늘한 문장들을 묶어냈다. 세기를 거쳐 살아남은 명언들과 저자의 에세이는 불친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보다 서늘한 진실임을 일깨운다. <중앙북스·1만3000원>

▲**한눈에 보는 세계철학사**=한 권으로 섭렵하는 동·서양철학사. 3000년에 걸친 철학적 물음들의 연쇄를 밝히고, 각 철학의 시대적 배경에서 핵심까지, 친절하고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시대별 철학의 전반적인 특징을 주제로 삼고 거기에 해당하는 철학자들을 소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학파를 앞세우기도 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인물이 있으면 함께 묶어서 소개한다. 목적은 동·서양철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맥락을 잡는 것이다. <양철북·1만8000원>

▲**골든 애플**=일본 미스터리 문학계에

서 신에 기수로 첫손에 꼽히는 마리 유키코의 ‘미스터리 매거진’ 연재작. 한 사람의 정신이상 증세가 주변인에게도 전염된다는 ‘감응정신병’을 모티브로, 주변에서 흔히 볼 법한 평범한 사람들이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광기의 극단을 향해 치달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사이코 미스터리 소설이다. ‘골든애플’은 언제 누가 어떻게 광기에 휩싸일지 예측할 수 없는 현대 사회를 향한 차가운 경고장처럼 느껴진다. <비제·1만3000원>

▲**세계사 공부의 기초**=조지메이슨대학 역사학과 피터 스티븐스 교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세계시민의 기초 체력이 올바른 세계사 공부에서 나온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온갖 역사적 사실을 암기하는 것보다 ‘역사처럼 생각하기’를 통해 사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힘을 기르라고 제안한다. 책에서 ‘세계사’는, 아우르고 있는 지리적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라기보다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며 인류의 과거를 통찰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삼천리·1만6000원>

▲**우리 동네 위험인물 1호, 2호**=형은 오가 동생 태오를 찾는 과정을 흥미로운 추리 형식을 빌려 풀어낸 창작동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낸 중요한 가치 ‘이웃’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이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이웃사촌’이라는 정서적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머스트비·9000원>

어린이 책

▲**색칠하고 사진 찍고 와우!**=색칠만 하는 컬러링북은 이제 그만. 컬러링북과 애니메이션이 만났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색칠한 그림을 사진 찍으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화면에서 내가 색칠한 그림이 살아 움직인다. 내가 색칠한 그림으로 7분짜리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다. <책과콩나무·9800원>

▲**개념 있는 열세 살**=아이들이 어렵게



서 가장 중요한 개념, 청소년이 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개념,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개념이 50가지를 골라 흥미롭게 풀었다. <책숲·1만3000원>

▲**아빠하고 나하고 열을 썰매 타러 가요**=화가 양상웅이 딸과 함께 집 둘레 강과 산, 동물들을 돌아다니며 자연을 관찰하며 만난 동식물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은 그림책. 모록모록 물안개 피어나는 아침 강가에서 눈꽃을 관

찰하고, 끼룩끼룩 찌저저 겨울이 내는 소리를 듣는다. 이야기를 읽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보리·1만5000원>

▲**우리 동네 위험인물 1호, 2호**=형은 오가 동생 태오를 찾는 과정을 흥미로운 추리 형식을 빌려 풀어낸 창작동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낸 중요한 가치 ‘이웃’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이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이웃사촌’이라는 정서적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머스트비·9000원>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중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